

강진 지난해 전지훈련 11만명 유치

차별화된 시책 발굴 성과... 111억 지역경제 파급효과

강진군이 지난 1년 동안 국내·외에서 전지훈련팀 476팀(11만664명)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1만명이 넘는 운동선수가 숙박 및 음식점, 관광지 등을 다녀가면서 110억원이 넘는 경제적 혜택을 강진에 안겼다는 분석이다.

강진군은 20일 “지난 15일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13년 전지훈련 우수사례 발표에서 2위를 차지해 인센

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축구, 럭비, 사이클, 야구 등 총 11개 종목 476팀, 11만664명을 유치했다. 이로 인한 직·간접적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11억7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군 체육회와 함께 전담팀까지 구성한 강진군은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숙박 및 음식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7월 초에는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일본 류가사키시 및 유통경제 대학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 끝에 럭비팀 110여 명을 유치했다. 또 지난 8월 일본 럭비팀이 전지훈련차 강진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국내 실업 및 대학 럭비팀 500여명의 선수들이 군을 찾아 함께 훈련하면서 럭비전용구장 등 5개 구장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강진팀 강진군수는 “스포츠 인프라

라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며 “앞으로도 국내팀이 강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스포츠 국제교류, 다양한 종목의 스토브리그 등 전지훈련팀 유치를 주력하고 선수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감동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2014년 3월까지 6개 종목 110여팀의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장성 나노산단 기공식

장성지역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이 20일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양수 장성군수,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07년 9월 산업단지 지정 이후 8년 만으로, 오는 2015년까지 1268억원이 투입돼 진면면과 남면 일원 90만1865㎡에 조성된다.

/장성=김홍희기자 yongho@kwangju.co.kr

해설이 있는 환경음악회 열린다

오늘 담양 청소년수련원서 '병풍산 환경문화축제'

‘제6회 병풍산 환경문화축제’가 21일 오후 5시 담양군 수북면 담양군청소년수련원 국제홀에서 열린다.

전남자연환경연수원(원장 나도팔)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이 후원한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환경특강을 비롯해 ‘해설이 있는 환경음악회’와 박종철 교수의 ‘자연

환경 인간 만남’ 소장작품전이 펼쳐진다.

환경특강은 전남자연환경연수원 박종철 교수부장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해설이 있는 환경음악회’는 전 MBC 인기 진행자 이용희씨의 사회로 ‘브리지 비올라 앙상블(Bridge Viola Ensemble)’이 출연



지난해 열린 제5회 병풍산 환경문화축제 장면.

해 ‘아름다운 나의 벗’ ‘사랑을 위하여’ 등 환경 클래식을 연주한다.

이어 수북초 부설 유치원생들의 부채춤과 채운재씨의 관소리 흥보

가, ‘아리 문화예술단’의 사물놀이(김해숙 외 10명), 이애자씨의 명품민요 메들리 등의 순서로 공연될 예정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대나무 분재 감상하러 담양 오세요

대나무자원연구소 24일까지

죽향 담양군에서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의 대나무를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군 대나무자원연구소는 20일

“오는 24일까지 죽죽원 야외무대와 생태전시관 등에서 대나무 분재작품 5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와 2014년 담양대나무축제 기간 중에 열린 ‘분재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전시된 작품들은 대나무 분재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이 그동안 분재, 조경수에 대한 이론과 실습 등 수업과정을 통해 정성껏 가꾸 만든 것이다.

담양군은 왕대, 분죽, 팽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 작품들이 관람객들과 일반인들에게 대나무 분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나무 분재는 죽순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죽순 껍질을 벗겨내며

원하는 마디 성장 정도와 가지 형태를 유인해 다양한 모습을 만들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나무 분재를 감상할 때는 허리를 굽혀 아래서 위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살펴봐야 조화와 변화를 갖춘 가지의 방향 등 작품을 바르게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도내 버스 내일 새벽 올스톱

14개 시·군 1200여대 운행 중단... 도민 큰 불편

전북도내 버스 대부분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22일 새벽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자동차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22일 새벽 4시부터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시내·시외·농어촌버스가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참가하는 버스는 도내 14개 시·군을 오가는 1467대 중 1200여대(81.8%)에 이를 것으로 노조는 예상했다.

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버스는 파업을 결의한 한국노총 산하 전북자동차노조 소속의 17개 회사 버스다.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3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도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히 파업 일수나 강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3가지 요구는 ▲정년(현행 60세)의 1년 연장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의 현실화 및 내년도 임금 인상 ▲해고 조항(10대 중과실에 사교시·

1명 이상의 사망사고 시 해고 가능 조항)의 철폐다.

안재성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전향적인 대안을 내지 않으며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행정관청도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동차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1962명 중 1410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1206명)의 찬성으로 파업 결의를 가결한 바 있다. 노사는 이후 두 차례 물밑 교섭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갯벌센터 어떻게...’ 심포지엄

고창군은 20일 “지난 19일 군립도서관 회의실에서 ‘고창갯벌 방문자센터(이하 갯벌센터)의 올바른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도시와 자연연구소 제종길 소장, 신구대 김인호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장지

연 연구원, 성균관대 민병근 교수,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오창길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방문자센터의 역할과 기능, 합리적인 운영방안, 지속가능한 발전허브로서의 방문자센터, 환경친화적 센터의 구조와 디자인, 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펼쳤다.

/고창=음형영기자 cy0370@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안된다”

남원시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남원에 있는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움직임에 남원시의회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에서 양희재 의원이 발의한 ‘국립공원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연구원이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설립된 이후 지속 발전 가능한 연구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강원도 원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자치단체와 한미디 협의 없이 건물이 노후 협소하다는 이

유로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3개도(전남·북, 경남)와 남원시민을 우롱하고 기관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는 국립공원연구원의 이전계획 및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 2006년 남원시 추천면으로 옮겨온 국립공원연구원의 건물이 낡고 협소하다는 이유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옛 원주지방환경청 부지로 이전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연구원은 현재 원주를 제외한 29명 남원에 근무하면서 공원 평가업무, 탐방문화, 국립공원 관련 사회·인문·환경 등에 대해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사랑의 김장나누기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은 20일 새마을지도회, 여성단체협의회, 사랑의 열매봉사단 등 정읍시 관내 여성 봉사단체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고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3개 단체가 이날 담근 김장김치 4000여 포기는 700여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s@kwangju.co.kr

단신

순창군, 내년 예산 2788억 편성... 올보다 6억 증액

순창군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도 본 예산을 올해보다 6억 원 증액 편성했다.

이로써 순창군의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644억원, 특별회계 144억원 등 모두 2788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90억원(24.7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회복지보조 448억원(16.07%), 국도 및 지역개발 260억원(9.32%), 환경보호 232억원(8.34%) 순이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농기계현대보수사업(11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32억원), 경천 교량의 강 정비사업(34억원) 등이 다.

회 운영성과와 주요안건 등을 토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비용, 탈선예방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 차안안전망 개선, 교통단속용 CCTV를 매년 2대씩 추가설치 등이 논의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경찰서, ‘안전한 정읍만들기’ 안건 협의

정읍경찰서는 지난 19일 정읍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정읍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열고 안전한 정읍만들기를 위한 주요안건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의장인 김생기 정읍시장과 김동봉 정읍경찰서장, 김승범 정읍시의회 의장 등 치안협의회 위원 19명이 참석해 치안협의

회 운영성과와 주요안건 등을 토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비용, 탈선예방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 차안안전망 개선, 교통단속용 CCTV를 매년 2대씩 추가설치 등이 논의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s@kwangju.co.kr

남원, 정치후원금 2725만원 선관위 전달

남원시는 20일 깨끗한 정치후원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정치후원금 2725만원을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모금에는 이환주 남원시장 등 공무원 284명이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정치후원금 기탁은 대한민국 국민

이러면 누구나 가능하며 가까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제일고, 모의재판 경연 민사부문 대상

전북도교육청은 20일 “군산제일고 뉴스팀(학생 13명)이 제8회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민사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뉴스팀은 지난 13일 법무부 주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대회에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억울한 자살을 한 학생의 민

사소송’을 주제로 참가했다.

대회는 지역 예선을 통과한 20개 고교 팀이 민사, 형사, 헌법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뉴스팀은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